

미래에는 조리사가 남아있을까?

한식조리과학전공 202311196 오규택

1. 서론

AI(인공지능)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기계가 사람의 지적 행위를 모방하여 사람의 일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AI는 4차 산업 이후 우리에게 친숙해질 정도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리나 빅스비처럼 말을 하면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나 현재 떠오르고 있는 챗GPT가 그 예시다. 이와 같은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일자리, 그 중에서도 조리사라는 직업은 AI가 대체하게 될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AI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같은 외식업 사장님을 보면 인건비나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키오스크나 조리기계 같은 단순하고 쉬운 일들은 AI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 같은 곳은 간단한 일이라도 사람이 챙기는 것처럼 AI에게 큰 의존을 하지 않는 점에서 두 예시가 서로 대립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AI가 조리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글을 써볼까 한다.

2-1. 본론 1

사람들은 대부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 애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레스토랑, 파인다이닝을 찾기도 한다. 한 기사에서는 ¹⁾“사람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음식, 인테리어, 서비스, 소셜미디어, 지인의 추천 등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같은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오로지 음식 그리고 좋은 경험 때문이다. 레스토랑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만은 아니다. 음식을 통해서 환대를 베풀고 ‘접객’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음식의 퀄리티와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서비스를 AI로 대체한다면 서비스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도 음식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대로 맞춰주면 되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각 조리사마다 생각, 창의성과 같은 각자만의 ‘감성’을 다양한 조리법과 복잡한 플레이팅으로 담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AI를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현하기에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미술계에서는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들을 무단으로 학습시켜 비슷한 그림으로 생성하면서 표절 논란이 생기고 있다. 즉 AI에게는 사람에게만 있는 감성(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본론 2

또 다른 이유는 AI 혼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치킨, 피자 만드는 로봇은 무엇이나 생각할 수도 있다. 피자과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²⁾“간단히 조리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음식”으로 조리 과정을 간단히 하였기에 AI가 만들 수 있는 것

1) “손님에 대한 배려와 환대가 레스토랑의 진짜 경쟁력”, 중앙 선데이, 2021년 8월 14일 수정, 2023년 5월 29일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7779#home>.

2) “패스트푸드” 검색 2023 5월 29일 접속, 202<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236&cid=48160&categoryId=48160>.

이다. 하지만 파인 다이닝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 패스트푸드에 비해 복잡한 레시피가 많고, 다양한 조리 방법도 있다. 이런 수십, 수백 개의 방법을 활용해 만드는 음식을 과연 AI가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장치를 AI에 넣기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본론에서 얘기했듯 독창적인 플레이팅을 하기가 힘들다.

3-1. 반론

현재 조리업을 하는 곳을 보면 다양한 AI가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는 조리 로봇, 무인 점포, 다양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와 주문한 음식을 자리로 갖다주는 서빙 로봇이 있다. 조리 로봇은 말 그대로 요리사가 하는 조리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빙 로봇은 주문한 음식이나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1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을 AI 하나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점과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즉 이 예시들은 조리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2. 재반론

그러나 조리업계에서 사용되는 AI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꺼려하거나 주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기계에 익숙치 않은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키오스크가 조작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또한 조리 로봇은 일정한 레시피를 배워 조리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지역, 위치에 따라 먹는 음식, 방법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음식이여도 다양한 레시피 변화가 필요하다.

4. 결론

지금까지 AI에 대한 견해를 내보았는데 인간과 AI는 결코 떼어 놓으려 해도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점점 AI가 인간을